

## <‘인간생활과 경제’ 수업 참관기>

### 배경

11월 20일 화요일에 교수님의 배정을 받고, 이준구 교수님께 언제 수업을 듣고 어떻게 수업을 관찰 할 것인지에 대한 메일을 보냈다. 그날 밤 바로 이준구 교수님께 수업 참관을 환영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성격이 시원시원하실 것 같다.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도 직접 운영하시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 꽃과 풍경의 좋은 사진들을 찍는 것이 취미인 것 같았다. 인터넷으로 서울대를 찾아가는 길을 검색해 보았고, 수업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의 계획서를 뽑고 강의실을 찾아보았는데 나와 있지 않았다. 홈페이지 글씨도 너무 작아서 불편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인간생활과 경제’의 수업교재인 『경제학 들어가기』를 빌리고 경제학과 조교실에 전화를 걸어 강의실을 물어봤다. 드디어 11월 22일 수업 하는 날이다. 8시 되기 조금 전에 길을 나섰다. 4호선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곳이 생각보다 길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탔다. 다행히 별 탈 없이 정문에서 내렸다. 인터넷에서 봐두었던 대로 찾아갔다. 내가 강의를 듣게 될 건물은 새로 지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수업 할 강의실은 세미나실이었다. (83동 501호)약 9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다.

### 수업 참관 결과

시간	수업 내용	학생A	학생B	해석
10: 05: 00	(수업25분전)교실도착. 학생 둘이 1분단 3번째 줄과 5번째 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 학생 한명은 2분단 뒤에서 3번째 줄에서 공부를 한다.			세미나실 이라고 하는데 교실은 그냥 평범했다.
10: 11: 00	공부하고 있던 학생의 여자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 여자 친구가 말한다. ‘지금 수업 두 시간 하고 쉬는 시간 잠깐이야. 교수가 종결어미가 없어. 난 파워포인트만 보잖아. 좀만 더 기다려.’			공부하던 학생은 이 수업을 안 듣나 보다. 아쉽다. 관찰하려고 했는데...
10: 13: 12	학생한명이 들어와서 2분단 3번째에 앉는다. 책을 꺼내서 읽는다. 여자 친구가 말한다. ‘여기 수업 있어요?’ 책 읽던 학생이 말한다. ‘네.’			누구를 관찰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남자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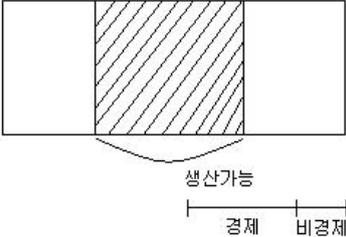
10: 15: 26	10시 반에 시작인데.’ 학생 한명이 들어왔다가 화장실 간다. 여자 친구와 공부하던 학생이 나간다.			들이 하나 들썩 들어온다.
10: 17: 00	또 다른 학생이 들어와서 2분단 맨 앞에 앉는다. 화장실 갔던 사람이 들어와서 2분단 두 번째로 자리 옮긴다.			경제 수업이라서 여자학생은 적은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여 학생이 들어왔는데 커플인가보다.
10: 18: 12	처음으로 여자 학생이 남학생과 함께 들어온다. 1분단 뒤에서 3번째에 앉는다. 교실은 쪽 조용했는데 들이 들어와서 히히거리며 떠든다.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와있구나 했었는데 처음 학생 셋은 모두 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10: 19: 08	처음에 자고 있던 학생 둘이 깨더니 나간다.			혼자 일찍 온 사람들은 2분단을 선호 하는 듯 했다.
10: 19: 29	또 다른 여학생이 들어오더니 2분단 맨 앞에 앉는다.			관찰하기 잘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되어 학생A로 정했다.
10: 20: 03	학생 둘이 들어와서 2분단 둘째 줄에 앉는다.			수업시간5분 전이되자 학생들이 점차 들어 오고 바로 전이되자 더 많이 들어온다.
10: 21: 15	학생 한명 들어와서 2분단 셋째 줄에 앉는다. 또 학생이 들어와 2분단 셋째 줄에 앉는다.			교수님의 시간은 정확하셨다.
10: 22: 13	학생 둘이 들어오더니 1분단 첫째 줄에 함께 앉는다.			학생B로 잡았다.
10: 24: 09	여자한명 들어와서 2분단 5째 줄에 앉는다.(학생A)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다.
10: 25: 08	학생 3명이 함께 들어와 1분단5번째 줄에 앉는다.			
10: 26: 09	남학생여학생이 짧은 간격으로 30명 쯤 들어 왔다.			
10: 30: 00	학생들이 무더기로 우르르 들어온다.			
10: 31: 10	★앞문이 처음 열리며 교수님 들어 오심.			
10: 31: 58	헐레벌떡 뛰어온 여자학생이 내 옆에 앉았다.			
10: 32: 02	★교수님이 말씀 시작하심. ‘캠퍼스에서 여학생이 특히 예뻐 보일 때가 언제 인줄 알아요? 데이트 할 때예요. 또 애들 데리고 다니는	교수님 본	책, 필통 꺼내고 분주하다.	

	<p>엄마 얼굴도 예뻐 보여요. 웃음을 짓고 있기 때문인 거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웃을 때 얼굴이 제일 좋아 보여요.</p> <p>언젠가 우리 학부 교수 단체사진을 찍는데 다들 굳은 얼굴인거야. 옆에서 보던 아줌마가 “방끗!”하고 소리쳐 다들 웃었어. 나중에 보니 그 사진이 제일 잘 나왔어. 모두가 웃는 얼굴이 되도록.’</p>			<p>수업시 작전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삶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다. 즐겁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p>
10: 34: 36	<p>★ 20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경제 안정에 대한문제.</p>	교수 본다.	문자한다.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10: 35: 06	<p>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영어로 표현하면 Two evils of the economy. 경제의 두 가지 이블, 악덕이다 이거야.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왜 경제의 악덕이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 실업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실업이 악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명한 일이에요. 실업이란 유용한 경제적 자원이 낭비 되는 것을 말하죠. 실업이 된 만큼 생산에 쓰이지 못하니까.</p>			<p>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p>
10: 36: 09	<p>지금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실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거죠. 또한 실업은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도 무척 고통스러운 거예요.</p> <p>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실업에 빠진 사람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크지요. 실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이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악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p> <p>근데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그것이 왜 나쁜 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p>	필기한다.	문자한다.	<p>A학생은 수업을 잘 듣고 있는 듯 해보였는데 B학생은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분주하다.</p> <p>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을</p>

<p>10: 37: 14</p>	<p>조금 대답이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몇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p> <p>예를 들면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 뭐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에요.</p> <p>왜 반드시 맞는 얘기가 아니냐면 임금의 변화 추이하고 물가의 변동 추이를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바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계 압박을 준다는 주장은 분명하지 않아요.</p> <p>또한 인플레이션 중에서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과 예상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완벽하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임금 계약을 할 때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을 임금에 반영하기 마련이야. 예를 들면 내년에 물가가 7% 오를 것이 분명한데 임금상승률 5%로 도장을 찍는 노동자는 없어요. 아주 전체적인 국가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라면 임금 상승률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혹은 채권 채무계약을 맺을 때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존 폴튼 같은 사람이 '나는 적어도 3%의 실질 이자율을 얻어야겠다.' 고 생각하는데 예상되는 이자율이 7%라면 10%의 명목 이자율을 요구하게 되지. 결국 완벽하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이거지. 물론 그렇다고</p>	<p>의자 당겨</p>	<p>문자 보냄.</p>	<p>해주셔서 오랜만에 듣는 내용인데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으며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p> <p>교수님의 수업 내용은 명쾌했다. 이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곧장 그에 따른 이유도 설명해주신다.</p> <p>학생들은 한명도 떠드는 사람이 없었으며 수업 초반이라 다들 집중하고 있었다.</p> <p>교수님은 예를 잘 들어주셔서 설명해주신다.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p>
-------------------	--	--------------	---------------	--

10: 39: 23	<p>해서 완벽하게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0은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비록 완벽하게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플러스의 값을 가진다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메뉴 비용 이에요.</p> <p>음..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있잖아. 예를 들면 설렁탕이 한 그릇에 5000원. 그다음에 수육이 한 접시에 20000원인데 인플레이션이 생겨 값을 올리려면 그 메뉴를 바꿔놔야 돼. 여러분들은 아 그거 메뉴 하나 바꾼다는 게 0을 하나 지우고, 위에다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현실 생활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도매상에게 가격을 올려 받고, 도매상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려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 가야해. 상대방에게 알려서 납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지. 그걸 총칭해서 메뉴비용이라고 해.</p> <p>또 가격표를 올렸을 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렇다면 이 메뉴 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이 아니야.</p>	교수 봄.	문자 보냄.	학생A는 교수를 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 학생B는 문자를 너무 보내고 있다.
10: 40: 28	<p>두 번째는 구두창비용.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현금으로 보유하면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자산을 가지려고 하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현금이 필요하면 자주 바꿔요. 현금은 최소한으로 갖고 다른 실질 가치가 보장된 자산으로 갖고</p>	뭔가 끄적임.	필기한다.	<p>교수님은 알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주신다. 매우 흥미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p> <p>학생B는 나를 필기도 한다. 근데 학생 A는 필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낙서를 끄적이는 듯 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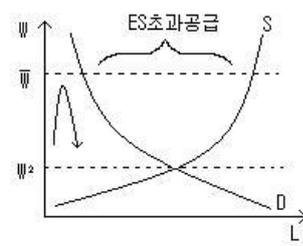
10: 41: 01	<p>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바꾸죠. 이렇게 잦은 왕래를 할 때 거래비용이 드는데 바로 그게 구두창비용이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구두창이 빨리 닳는다고.</p> <p>★앞문이 열린다. 문 열고 물통을 들고 남학생이 들어온다.</p> <p>야, 내 조교야. 인사나 하고 가라. (학생들이 웃는다. 하하하) 엘리트야. 상당한 엘리트라고. 00학번이야. 음... 이 친구는 나의 미움을 사고 있지. 한국군 출신들은 카투사 출신들을 상당히 질투하고 있지. 나는 그야말로 일식일찬 으로 염적무국을 먹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양식으로 먹고 양식이 입에 질린다는 그런 방자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지. (학생들이 웃는다. 하하하)</p>	뭔가 끄적이고 있다.	문자한다.	조교가 수업시간에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바람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 되었다. 교수님은 참 유머러스하시다. 말씀이 재미가 있다.
10: 42: 10	<p>이 부분 구두창비용. 이 몸은 구두창이 닳는 사례를 실감한 적이 있어요. 유학시절에 세일에 혹해서 가죽창 구두를 샀다가 3개월 만에 구멍이 났는데, 나 같은 노동자한테는 안 어울려요. 그게 차타고 다니는 높은 사람들이 신는 거지. 아무튼 구두창비용 얘기가 나오면 가난했던 나의 절절한 사연이 생각나지.</p>	교수를 본다.	머리를 만진다.	학생A는 교수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집중하는 듯 해보이나 학생 B는 계속 문자를 한다. 수업을 듣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10: 42: 59	<p>그렇다면 처음에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실업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3~4%를 왔다갔다 해요. 우리나라는 5%넘는 경우가 드물어요. IMF때는 잠시 넘었지만. 미국은 5% 미만으로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유럽은 더해요.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7% 내로 떨어진 적이 드물어요.</p> <p>각국을 비교해 보면 실업률에 차이가 나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효율적이고 경제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p>	교수를 보고 있다.	책장을 넘긴다.	다른 학생들은 대체로 교수를 보면서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10: 44: 21	어 실업률이 낮다. 그리고 유럽은 그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측면도 있고 옳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교수 본다.	필기한다.	학생B가 필기를 열심히 하기 시작한다.
10: 45: 10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5천만의 인구가 있다고 치면 3살짜리 어린이한테 노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 예요? 혹은 90살 노인에게 일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경제활동인구가 있는 거지. 생산가능연령 인구라는 게 있고.....	철판 본다.	필기를 한다.	학생A는 중요한 내용인 듯 해 보이는 판서를 필기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
10: 46: 18	★판서 	기침을 한다.	문자를 한다.	수업 초반에는 학생B가 딴 짓을 했는데 이제는 학생A가 딴 짓을 하기 시작한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다.
10: 46: 57	(교수님 물마심)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작장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 재는 거지. 비경제활동인구는 애당초 통계에서 빠져버려.	한 펜을 들고	펜을 들고	수업 초반에는 학생B가 딴 짓을 했는데 이제는 학생A가 딴 짓을 하기 시작한다.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다.
10: 47: 55	★판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discouraged worker</div>	옷을 만진다.	펜을 만지작거린다.	늦게 들어온 학생에게 신경이 쓰인다.
10: 48: 10	학생 한명이 늦게 들어와서 두리번 두리번거린다.	걸옷의 끈을 묶는다.	교재를 본다.	학생이 열심히 하나 싶었는데 또 문자 질이다.
10: 49: 08	일본의 경우에는..... 늦게 들어온 학생은 아직도 뒤에 서 있다.	공책의 뒷장을 편다.	문자를 한다.	그래도 학생B는 중요한 내용은 꼭 필기 하는 것 같다.
10: 49: 51	(교수님이 걸옷을 벗는다.)한 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한사람은 그러니까 실업자가 아닌 거지..... 늦게 들어온 학생은 아직도 뒤에 서	공책을 만지작거린다.	필기를 한다.	교수님은 늦게 들어온 학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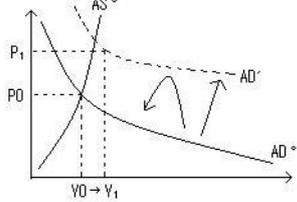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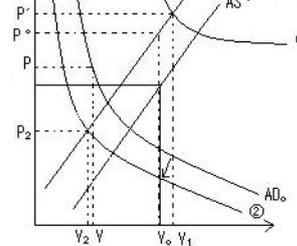
10: 49: 55	있다.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 놓는다.		다.	행동에 신경이 쓰이지나보다.
10: 51: 03	교수님이 늦게 온 학생에게 말하신다. '야! 앞으로 나와' 늦게 온 학생이 가방을 들고 앞자리에 와서 앉는다. (교수님 물 마신다.)	공책 뒷장을 본다.		법대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키고 필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10: 51: 50	첫 번째 실업의 유형. 경기적 실업이야.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해서 실업이 늘어난다.....		필기를 한다.	곳도 있던데 이 수업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 같다.
10: 52: 03	두 번째는 마찰적 실업. '야 너는 왜 컴퓨터를 꺼내니? 시끄러워요.' (늦게 들어 온 학생이 노트북을 꺼냈다가 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한다.	책을 보고 있으며 같이 웃는다.	
10: 54: 09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자발적 실업에 빠지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갔는데 직장을 못 찾고 있다. 책에 보면 원빈 사진이 있는데 실업률 0% (학생들이 웃는다. 하하하)를 원한다고 하네. 실업률이 0%가 되려면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좋은 직장 찾으려고 그만두려면 너 죽을래? 이사간다고? 너 죽고 싶냐? 이런 세상이 되어야 실업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은행에서도 즉각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이 포스터를 거둬들인 것 같아. (학생들이 웃는다. 하하하) 최근에 내가 길가다가 디카가 있으면 저거 찍어다가 홈페이지 올렸어야 했는데 사진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간판에 '똥값세일'이라도 써있더구만. 뭐 여성내의는 100원 양말 500원 팬티 1000원이라나. 우리 아들이 왜 팬티가 비싸? 그랬는데 100원짜리 사면 금방 구멍 나겠지. 그거 팔아서 뭐 이익 남겠어? 하여튼 그런 사진을 찍는 게 내 취미인데 (학생들이 웃는다. 하하하)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교수에 집중하고 있다.	학생A는 이제 옆 사람과 잡담도 하고 본격적으로 판짓을 하고 있다. 학생B는 수업을 잘 듣고 있다.
10: 56: 14		교수 본다.	교수 본다.	주제가 하나 넘어갈 때는 주의가 집중된다. 또 학생들도 교수님을 보며 집중을 한다.

10: 57: 30	<p>그래서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연실업률의 경제는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p> <p>세 번째 실업의 경우는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실업이야. 예를 들면 한미 FTA 체결되면 실업자가 생길 수 있지. 산업구조의 개편에서 생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실업이지. 좀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긍정적이지만. 이 구조적 실업은 없애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없는 신발 산업을 없애고 IT산업만 한다고 해봐. 재봉틀 만지던 사람이 삼성전자에 가서 일한다고 쳐봐. 그렇게 하려면 그 재교육이 필요하지. 쉬운 일이 아니죠.</p> <p>그러면 이제 자연적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p> <p>(교수님이 손목의 시계를 풀고 손목을 돌리신다. 물 마신다.)</p>			교수님이 답답하신지 손목의 시계를 풀고 손동작을 좀 더 사용하신다.
10: 58: 20		교수님을 본다.	필기를 한다.	필기를 한다.
10: 59: 58	<p>옆 사람을 본다.</p> <p>옆 사람을 본다.</p>	옆 사람을 본다.	필기를 본다.	학생A는 딴 짓을 하고 멍해있다. 학생B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A는 처음에는 교수님을 잘 보고 있어서 수업에 집중을 하는 듯해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딴생각도 하고 옆 사람과 잡담도 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학생B는 처음엔 문자를 너무 많이 해서 공부 안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학생B의 공책을 슬쩍 보니까 나름대로 필기는 잘하고 있었다.
10: 59: 58	<p>★관서</p> <div data-bbox="427 1339 671 1503" data-label="Diagram"> </div> <p>P478을 보면 식당 앞에 줄서 있는 학생들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창용 교수가 식당 앞에 서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연실업에 비유한 거야. 그 사람 상당히 유머 센스가 있지. 그 사람이 거시경제를 가르키는데 거기서 매일 나를 능멸하는 발언을 한대.(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왜냐면 거시경제할 때 미시적 경제가 기초</p>			

11: 00: 32	<p>가 있어야하는데 미시적 기초를 물어보면 애들이 잘 몰라. 그때 ‘니들 누구한테 미시 배웠냐?’ 애들이 이준구 선생님이요 하면 좋아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이렇게 나를 능멸한다고. 그</p>	기침을 한	교수를 본	교수님은 물을 자주 마신다. 학생들이 교실 가득차서 숨이 막힌다. 답다. 공기가 탁하고 답답하다. 나도 목이 종종 말라물을 마셨다. 물을 가져가길 잘한 것 같다.
11: 01: 55	<p>이창용선생의 유머센스를 살리려고 식당에 출선 사진을 찍어서 책에 실으려고 하는데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나온 사진인데.</p> <p>따라서 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 경제의 제도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거야. 유럽은 실업의 공포가 적은 나라야. 어떤 친구가 네덜란드에 입양을 갔는데 네덜란드 고관 집에 입양이 되었다고. 근데 요즘 실업 수당 받고 있다고 해. 기껏 입양이 돼서 실업수당 받고 있다고. 그래도 굶어 죽진 않지.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사회에서는 실업에 따른 고통이 적어. 실업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굶어죽을 염려가 없다는 말이야. 또 취업 알선 센터가 많아. 그러니 쉽사리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지.</p>	명하다.	필기한다.	
11: 04: 11	<p>(교수님 물 마신다.) ..... 옛날 조선시대 성리학자를 보면 약간 한심스럽다고. 국사학과 계신분이 이 소리를 들으면 나를 죽이려 하겠지만(학생들이 웃는다. 하하하) 여러분들이 고자질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 내 속내를 드러내볼까? 예송논쟁처럼 쓰잘 데 없는 논쟁이 없는 것 같나. 왕이 대비의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는지 3년 입어야 되는지가 뭐 그리 중요해. 국사학자들은 예송논쟁을 통해서 당시 임진왜란, 병자호란 뒤의 흥흥해진 민심을 바로 잡으려 했다고 말하지만. 지도층이 할 일은 민중들한테 쌀 한 톨이라도 더 갖다</p>	교수 본다.	교수 본다.	<p>학생 A,B 둘 다 교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실 때면 교수님을 바라보며 즐겁게 이야기를 듣는다.</p> <p>교수님은 학생들의 행동 하나 하나에도 궁금하신가보다. 보</p>

11: 05: 17	줄 방법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끓어 죽는데 사회기강을 바로잡는다 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수 본다.	교수 본다.	통의 수업에서 는 아무 말 없 이 일어나서 화 장실을 가는 것 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수업 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인지 딴 짓을 하는 학생들이 적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11: 07: 01	★난 미안하지만 조선시대 별로 좋 아하지 않아요. 조선을 통틀어서 유 일하게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 한 분. KBS에서 이순신 장군 연속 극할 때 한번을 놓치지 않고 봤어 .....(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이순신	딴 생각하 는 듯이 머 리 만진다.	교수 본다.	
11: 08: 44	이 명랑해전에서 적선 100여 척 을..... (갑자기 학생 한명이 일어난다.) ‘너 어디 가냐?’ ‘아니 콧물이 나서 화장 실 줌’ .....	필기한다.	필기한다.	
11: 09: 02	(화장실 갔던 학생 돌아옴) 이순신장 군의 훌륭한 애국심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거죠. (교수님 물 마신다.) 다음은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그 런 성격의 실업이죠.	필기한다.	필기한다.	학생들은 전체 적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 는데 수업이 반 쯤 지나자 자는 학생들이 생겨 나기 시작했다. 집중력이 흐트 러지기 시작한 모양이다. 1분단 뒤쪽에 2명이 옆드려서 자고 있다. 2분단의 뒷줄에도 1명의 학생이 옆드려 자고 있다. 그래 도 학생 A, B 는 다행이 졸지 는 않는다. 학생 A는 재밌는 이
11: 10: 59	★판서	교수 본다.	필기한다.	야기에 미소만 떨고 학생B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 리 내어 웃는다.
11: 11: 21		교수 본다.	필기한다.	
11: 12: 30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은 임금의 경 직성이 크다고 보지 않았어. 거기에 비해 케인지가 생각하는..... 효율임금은 고용주들이 일부러 높은 임금을 주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음식점 가보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메뉴판 주고 물 주고 뭐 부르면 냅다 뛰어 오고. 또 다른 데는 손님이 들어가면 와서 물을 콧 던져 놓고 ‘뭐 먹을래요.’(학생들 웃	옆 학생 본 다. 크게 웃 지도 않는 다.	교수 본다. 다른 학생 들과 비슷 하게 웃는 다.	

11: 15: 30	는다. 하하하) 그리곤 뭘 불평하면 '대충먹지 뭐 그래요.'라고 통명을 부리죠.	펜 가지고 만지작거린다.	교수 본다.	
11: 16: 01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임금의 차이지요.	필기한다.	필기한다.	
11: 17: 03	★여담이지만 음식점에 가서 절대로 불평을 하면 안 돼. 불평하면 보복을 받게 돼 있어. 이건 만국 공통이야. 내가 그걸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 내가 유학시절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뉴욕에 갔는데 버마 남학생하고 영국 여학생이 같이 갔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음식이 안 나와서 불평하니 영국 여학생이 말려요. 보복을 당한다고.(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교수 본다.	시계 본다.	
11: 22: 18	(교수님이 책장 넘김) 다음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보도록 하겠어요.	펜을 만지작거린다.	교수 본다.	
11: 23: 13	★판서	귀를 판다.	필기한다.	학생A는 산만해졌다. 학생B는 집중을 한다.
11: 25: 12	Fisher 가설	교수 본다.	책장을 넘긴다.	학생들은 모두 책장을 넘긴다. 학생B도 책장을 넘겼다. 학생A는 교과서는 있는데 책도 안 넘기고 교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아까 수업시작 할 때도 교수님을 바라본 것이 수업에 집중을 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
11: 27: 20	예상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채무자가 이득을 보고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 내지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인플레이션 덕을 톡톡히 봤어요. 게다가 1973년에는 8.3조치를 통해 엄청난 이득을 보기도 했고. 두 번째 문제는 장기계약 맺기가 어려워져요.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도 필요한 것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투기가 성행하는 문제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장단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수 본다.	필기한다.	아까자고 있던 학생들은 아직도 자고 있다. 아까부터 한 번

11: 31: 04	 <p>The graph shows the AS-AD model. The vertical axis represents price (P) and the horizontal axis represents output (Y). The initial equilibrium is at the intersection of AS° and AD°, corresponding to price P0 and output Y0. A shift in aggregate demand from AD° to AD' moves the equilibrium to a higher price P1 and higher output Y1. A simultaneous shift in the aggregate supply curve from AS° to AS' also moves the equilibrium to a higher price P1 and higher output Y1. Arrows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se shifts.</p>	책상 본다.	필기한다.	도 깨지 않고 자고 있다. 이 수업시간에 큰 행동을 하는 것에는 지적이 가해지지만 잠을 자는 것에는 지적이 가해지지 않는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서 일까? 짐작해보았다.
11: 32: 04	 <p>The graph shows the AS-AD model with multiple shifts. The vertical axis is price (P) and the horizontal axis is output (Y). The initial equilibrium is at the intersection of AS° and AD0, with price P and output Y0. A shift in aggregate demand from AD0 to AD1 moves the equilibrium to a higher price P1 and higher output Y1. A shift in the aggregate supply curve from AS° to AS1 moves the equilibrium to a higher price P2 and lower output Y2. A second shift in aggregate demand from AD1 to AD2 moves the equilibrium to a higher price P3 and higher output Y1. A final shift in the aggregate supply curve from AS1 to AS2 moves the equilibrium to a higher price P4 and higher output Y1. Circled numbers 1 and 2 indicate the order of shifts.</p>			학생들의 웃는 소리에 잠을 자던 3학생 중 1명이 잠을 깬다. 이 수업시간은 교수님이 유머 센스가 있으셔서 학생들의 웃음이 많다. 재밌어서 좋았다. 덕분에 자고 있던 학생도 일어나고 말이다. 교수님은 경제이야기라서 지루할 수 있는 수업 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학생들의 지루함을 달래 주신다.
11: 33: 02	<p>cost-push 라는 것은 비용이 상승함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총수요가 너무 커져 생기는 것은 demand-pull 이라고 부르고.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케인지안적 처방은 무력해지죠. (노트북 학생이 질문을 한다.) ‘시카고학과에서는 그럼 저걸 해결할 방법을 아나요?’ ‘시카고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라고 하지.’ 놔두면 시장이 그냥 자동 조절 된다고 해서, 언젠가는 완전고용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지.</p>			
11: 33: 33	<p>★ 내 후배 교수가 시험 문제 낸 얘기 들었어. 그 동안 배운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5명 이름을 써라. 케인즈, 프리드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어떤 놈이 기억이 안 나니까 시카고라고 쓴 거야. (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시카고학과니까 시카고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무식한 놈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가 이준구라고 쓴 놈이 있어.(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그렇지만 이창용이라고 쓴 놈은 한 놈도 없었대. (학생들 오~한다.) 이창용은 없었다 이거야.</p>	교수 본다.	필기 한다.	교수님이 판서를 하셔도 학생 A는 거의 적지

11: 34: 03	그래서 좀 자존심이 사는 거지. 그래도 이창용보다는 이준구가 더 유명하지.(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않고 있다. 학생 B는 필기를 참 열심히 한다.
11: 35: 30	(노트북 학생이 질문을 한다.) ‘그걸 정답으로 인정했나요?’ ‘뭐라고?’ ‘그걸 정답으로 인정했나요?’ ‘그걸 정			
11: 36: 04	답으로 인정해줄 사람이 어디 있냐?’ (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그건 오답 중에 오답이지. 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경제학자 쓰라고 할 때 이준구지. 그건 정답일 수 있어.’(학생들 웃는다. 하하하) (교수님 물 마신다.)	교수 본다.	교수 본다.	‘뽀아그라’ 라는 거위 간에 대한 이야기는 신기했다. 이 이야기와 맞물려 교수님의 평소 소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인들을 꾸짖는 말씨는 정말 통쾌했고 새로운 상식 하나를 알게 되어서 참 좋았다.
11: 38: 04	그러면 그다음엔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판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 0;">hyperinflation</div>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것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인플레이션이다.	교수 본다.	필기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진도 또한 잊지 않고 나가신다.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 수업인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수업에 선정이 되셨겠지. 한번 들어봤지만 참 마음에 드는 수업이다.
11: 41: 51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도 물가가 오르는 걸 가리키는 거라고 해. ★뽀아그라는 거위간이에요. 지방간. 뽀아그라를 만드는 거위는 요만한 틀에다 가뒹요. 운동을 하면 지방간이 안 생기니까. 그러고서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되니까 강제로 먹여요. 아 별러가지고 기계로 확 곡물을 쏟아 넣는 거야. 거위가 못 넘기니까 손으로 쪽 훑어 주지. (학생들 아~ 한다.) 프랑스 친구들 우리 개고기 먹는 거 가지고 비웃는 건 말이 안 돼. 지들은 더 잔인하면서. 그게 뽀아그라야. 지방간. 몸에는 결정적으로 나쁘죠. 입에 단것이 몸에 나쁘	교수 본다.	필기한다.	
11: 42: 48	다. 그 다음 진미로 트러플이라는 것이 있는데, 송로버섯이라고 하지.	짐 챙긴다.	짐 챙긴다.	3분정도 일찍 끝났다. 하지만

	<p>하이퍼인플레이션은 무절제한 화폐 발행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만큼 돈이 필요한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기는 힘들니까.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 되어있는 시기예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어서 세계의 물가를 반으로 떨어뜨려 줘요. 그게 중국의 위대함이지.</p> <p>★다만 내가 중국 사람한테 바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 때 양심적으로 하라는 거.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만들지 말라. 이것이 내가 중국 인민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야. 우리가 여행할 때 생수를 마시면서 ‘내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 아닌가?’ 라는 공포감에 휩싸이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p> <p>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점심을 먹고 싶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강의를 끝내지. (노트북 학생 혼자 질문하고 교수님 대답하는데 학생들 짐 챙기면서 나간다.)</p>		<p>수업시작도 1분 밖에 안 넘겨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의 정 시각에 끝난 것이다.</p>
--	---	--	---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챙기고 교수님과의 면담을 위해 교실을 나왔는데 교수님이 이미 보이지 않았다. 걸음이 참 빠르신 가 보다. 난 두리번거리다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결심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있던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다.

연구자- 저기 혹시 교수님 못 보셨어요?

학생1- 못 봤는데...

연구자- 그럼 교수님 방이 어딘지 아세요?

학생1- 맞은편 건물 6층이요.

연구자- 오늘의 수업이 저번 시간의 수업과 같았나요?

학생1- 네. 똑같았는데.

연구자- 이 수업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 하세요?

학생1- 네? 음... 그냥 뭐.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재밌고.

연구자-그런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학생1-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연구자- 네. 감사해요.

1층으로 내려 온 뒤, 맞은 편 건물로 서둘러 뛰어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려 교수

님 방을 찾았다. 교수님 바에 다다라서 푹푹하고 들어갔다. 교수님은 학생 1명이랑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하셨고, 10분 정도 잠시 시간을 내주시기로 하셨다.

연구자- 교수님 수업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교수님- 수업 들었었어?

연구자- 네. 재밌었어요.

(수업 시작 전에 인사를 하는 것을 잊어 버렸기 때문이다. 분명 메일에 수업 관찰 일을 보냈고 뒤에 앉아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눈을 몇 번이나 마주쳤는데 교수님은 그냥 원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알고 계셨나보다. 교수님이 의식하시지 않고 평상시대로 수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좋았다.)

교수님- 그래? 면담 간단히 하고 이 시간에 못 한건 메일로 하죠.

연구자- 제가 식사 하시고 오는 동안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 아니 내가 바로 수업이 있어서.

연구자- 네. 오늘 수업이 평상시 수업과 다른 점이 있었나요?

교수님- 아니.

연구자- 근데 오늘 출석을 안 부르시던데, 출석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교수님- 랜덤으로 3~5회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력이 있어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네. 이 수업은 몇 년 째 담당을 하셨나요?

교수님- 5년.

연구자- 이 수업이 작년의 수업과 비교했을 때 바뀐 점이 있나요?

교수님- 없는데.

연구자- 그럼 내년에 또 이 과목을 수업 하신다면 어떤 변화를 주실 건가요?

교수님- 크게 없어. 원래 경제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짧은 시간에 뭐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은 변함이 없어요.

연구자- 네. 교수님 강의 계획서에는 ‘토론과 글쓰기 훈련’ 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신 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수님- 글쓰기는 리포트를 2주에 1번씩 내주는데 일간지 신문이나 경제 신문의 경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과 함께 써내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멘트를 해서 돌려주지.

연구자- 좋네요. 수업 진행상의 어려운 점은 혹시 있으신가요?

교수님- 애들이 질문을 너무 안 해서 탈이지.

연구자- 교수님 아까 수업 시간에 질문 하는 학생이 있던데 그 학생은 자주 질문하나요? 그 학생 아까 지각했었는데 뒤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교수님- 자주 하지. 서있게 한 건 지각한 사람은 일단 뒤에 서있으라고 했어. 수업에 방해되니까.

연구자- 아~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지각을 덜하고 수업시간이 조용했어요.

교수님- 내가 엄하게 해서 그런 것 같아.

연구자- 아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끝이야? 또 물어 볼 것 있으면 메일 보내라고.

연구자-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허겁지겁 면담을 해서 그런지 드리려고 했던 음료를 깜박하고 그냥 들고 나와 버렸다. 집으로 가기 위해 서울대 스쿨버스를 탔다. 난 역 까지 대려다 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았다. 캠퍼스만 도는 버스인가보다. 정문에서 급하게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른 학교에서 좋은 수업으로 평가되어 있는 수업을 듣는다는 점이 설레었는데 정말 예상 했던 대로 좋은 수업이어서 매우 보람된 하루였다. 경제학 수업이라서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꽤 걱정이 되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듣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학생들도 대체로 수업을 잘 들은 것 같다. 하지만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강제로 지적해서 시키면 말할 것 같긴 한데... 학생들에게 발표할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교수님의 성격은 너무 너무 좋으셨다. 친절하시면서 솔직하시고 유머 있으시고 화끈한 성격이신 것 같다. 시간도 딱딱 지키시고 뭔가를 계획하시면 예정된 대로 척척 하실 것 같고 밀리거나 앞당기거나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지키실 것 같았다. 그래서 인지 수업이 정해진 분량은 정확히 나가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된 것 같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준구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싶었다.